

## 인구이동과 지역단위별 농촌인구분포의 변화\*

김남일\*\* · 최 순\*\*\*

1960년 이래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결과 밝혀진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촌은 각 지역단위(군)별로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일러진 농촌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 1. 서론

한국사회는 1960년 이래 극히 짧은 기간에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했다. 공업화로 인해 우리는 보다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도시화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바꾸어 놓았다. 삶의 공간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가치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 이 글은 통계청의 1995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분석계획에 의해 연구된 논문임.

\*\* 동아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 주었던 기존의 사회구조는 부분적으로 많은 체제 부적응의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부지역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노출되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시부지역보다는 군부지역에서 체제부적응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찰되는 농촌문제의 대부분은 그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도시화나 공업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주로 인구이동으로 야기된 농촌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농촌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주로 인구의 농촌 이출현상과 관련된 인구이동은 농촌의 기존체제가 갖는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국민 대다수의 삶의 터전이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졌다는 사실은 종래의 삶과 관련된 기존의 가치를 뒤바꾸어 놓았다. 이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은 상호의존적·보완적 관계를 갖기보다는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촌의 인구는 지역의 특성, 다시말해서 도시와의 거리관계에 따라 매우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적어도 인구특성 면에서 지역간 이질성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급격히 변모하는 우리 나라 농촌사회의 제반 변동의 실상과 유형, 그리고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30여 년 간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던 인구이동을 농촌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동시에 농촌인구의 특성과 농촌생활의 본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촌인구에 관한 연구는 전체 농촌인구의 특성과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춘 총괄적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 이와 같은 총괄적 분석에서는 평균적인 농촌의 인구문제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분포에서 볼 수 있는 각 지역단위 고유의 농촌 인구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각 지역단위의 농촌 인구문제에 초점을 맞춰 인구구조와 관련된 특성별 지역단위의 분포를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성장의 수준과 지역인구의 특성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 2. 자료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1960-1995년 기간의 인구총조사 보고서 전국 및 각 시도편과 인구이동편, 그리고 1990년 및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자료 테이프를 주로 사용하였다. 인구총조사 2% 표본자료는 통계청에서 단순무선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한 표본으로 승수 없이 사용되었다. 다만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표본인구의 연령 및 성별구조를 검토한 결과 군인 등의 특별조사구 인구가 표본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였으나, 이에 대한 보정을 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각 군의 특성에 관한 자료는 각 시도의 통계연감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동인구의 추정은 인구 총조사의 만 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5년전 거주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이동인구는 인구총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만 5세 이상 인구중의 인구이동을 뜻한다. 0-4세 이동인구를 추정하는 인구학적방법이 있으나(U.N., 1970: 34), 0-4세 이동인구는 이 연구에서 특별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인구에 대한 추정은 생략하였다.

인구이동에 대한 조사방법상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1970년 이후 1995년까지 인구총조사에서 5년 전 거주지 조사방법을 비교한 결과 1990년과 1995년에 실시된 두 조사간에는 질문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조사원 교육을 통하여 적절히 대처했을 경우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또한 1990년과 1995년 조사직전에 큰 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이 있었다.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은 인구이동의 추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구이동의 추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로 행정구역 개편은 시권역을 확대 또는 행정단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정방법은 시·도내의 인구이동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1995년에 시행된 40개의 도·농통합시는 시·도내 이동인구수에 큰 영향을 주어 인구이동 추세 파악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광역시의 시권역 확장은 해당 광역시의 시·도내 인구이동수는 증가시키지만, 시·도간 인구이동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시권역의 확대나 통합은 총이동수를 감소시키고 시·도간 이동인구수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시·도내 이동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이동형태별 이동수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군부 → 군부 이동인구수는 감소시키지만 시부 → 시부 이동수는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 외의 이동형태에서는 영향의 크기나 방향은 논리적으로 유추하기 어렵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 당면했던 자료상의 중요한 제한점은 이동인구의 특성이 이동 당시의 특성이 아니고 이동한 후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특성가운데 학력수준은 비교적 문제가 없으나,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족구성과 특히 직업, 주택소유 등은 이동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이들 특성별 구성에 대한 분석은 특성별 이동성향의 파악보다는 조사 시점에서의 단순한 전체인구와 이동인구의 특성별 구조 비교,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 지역 내 전입 및 전출인구의 차이 비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적 차원에서 농촌인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지역특성별 인구의 분류는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시부와 군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를 다시 세분하여 집계한 읍부와 면부의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농촌인구를 군부인구와 동일시하거나, 면부인구만을 농촌인구로 간주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특성별 인구분석의 초점이 주로 도시인구의 형성과 성장에 두어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구분석의 초점을 농촌인구에 둘 경우, 농촌인구를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 문제는 농촌인구가 도시화 및 공업화와 연계되어 변모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할 경우 군부에 포함되어 있는 읍지역의 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논쟁점이 된다. 대체로 1970년대 이전에는 읍부인구나 면부인구가 인구구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특성면에서 서로 유사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읍부 인구의 성격이 면부보다는 오히려 시부인구의 성격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권태환, 1992: 41), 행정구역상으로는 군부보다는 면부만을 농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특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에서 인구이동을 분석하거나, 인구센서스 자료이외에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자할 경우는 자료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처럼 지역단위별 인구구조 및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일련의 설명적인 연구에서는 부득이 군부인구를 농촌인구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석방법은 대체로 1변수 혹은 2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방법에 의존하였다. 다만, 인구성장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다변수 분석기법중 판별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판별분석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용가능한 자료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 요인분석모형(Causal model)을 구성하기 어려웠고 또한 분석의 목표도 주어진 자료한도 내에서 집단간 최대한으로 차별화 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비율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Shryock et al., 1973: 654-656).

$$\text{총이동인구} = \text{시} \cdot \text{도내이동인구} + \text{시} \cdot \text{도간이동인구}$$

$$\text{이사인구비율} = \frac{\text{지역, 기간내 이사 인구수}}{\text{지역, 기간말 인구수}} * 100$$

$$\text{성비} = \frac{\text{남자 인구수}}{\text{여자 인구수}} * 100$$

$$\text{이동률} = \frac{\text{지역, 기간내 이동 인구수}}{\text{지역, 기간말 인구수}} * 100$$

$$A\text{지역 전입률} = \frac{A\text{지역, 기간내 전입인구}}{A\text{지역, 기간 평균인구}} * 100$$

$$A\text{지역 전출율} = \frac{A\text{지역, 기간내 전출인구}}{A\text{지역, 기간 평균인구}} * 100$$

$$A\text{지역순이동률} = A\text{지역 전입율} - A\text{지역 전출율}$$

$$A\text{와 } B\text{지역간의 이동효율} = \frac{A\text{와 } B\text{지역간 순이동인구}}{\text{지역간 총이동인구}} * 100$$

$$A\text{와 } B\text{지역간의 조인구교환율} = \frac{M_{ab} + M_{ba}}{A\text{지역인구} + B\text{지역인구}} * 100$$

(단,  $M_{ab}$  = B에서 A로의 이동인구,  $M_{ba}$  = A에서 B로의 이동인구)

$$\text{연평균 인구증가율: } r = \text{Antilog}\left(\log \frac{P_t}{P_0}\right) / t - 1$$

### 3. 도시-농촌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특성

〈표1〉에서 두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추세를 보면 시부→군부 이동은 이동률이 2.5%~3.8%의 범주 안에서 일정한 추세를 발견할 수 없으나, 최근기간(1990-95년)에는 3.1%로 이전기간에 비해 0.6% 포인트의 상당히 큰 증가를 보였다. 군부→시부 이동의 경우 1965-70년 11.5%에서 1985-90년 22.3%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1990-95년 기간에는 13.1%로 이전기간에 비해 무려 9.2% 포인트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의 순인구 이동률은 1990-95년기간 -2.1%였다. 이는 그간 인구이동에 의한 농촌인구의 감소율이 1965-70년 -9.1%에서 1985-90년 -15.2%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고려할 때 최근의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갑작스럽다고 해야 할 이러한 추세변동이 1995년의 시·군 통합시 혹은 시구역 확장 등으로 군의 수가 137에서 98로 감소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시·군부간 인구이동의 추세변동은 1995년의 행정구역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측정할 것을 보면(김남일, 1997), 1985-90년 기간의 인구이동에서 1995년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영향은 총이동률을 24.1%에서 23.6%로 0.5%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한 대로 시도간 이동보다는 시도내 이동을 더 크게 감소시켰다.

이동형태별로는 시부→시부 이동을 절대수에서 10% 정도 증가시킨 반면 군부→군부 이동은 50% 이상, 그리고 시부→군부 이동과 군부→시부 이동은 각각 22%와 24%씩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동형태별 이동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1990-95년 기간중 서울의 순전출인구가 879천명에 달하였으므로 이것이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부의

〈표1〉 기간 및 이동형태별 총이동인구와 이동률 (단위: 천명, %)

기간	군부→시부	시부→군부	순이동	
			시부	군부
1965-70	1,827	387	1,440	-1,440
1970-75	1,754	558	1,196	-1,196
1975-80	2,524	681	1,843	-1,843
1980-85	2,424	889	1,535	-1,535
1985-90	2,329	743	1,586	1,586
1990-95	1,173	983	190	190
( 이동률 )				
1965-70	11.5	3.4	12.8	-9.1
1970-75	11.1	3.8	8.1	7.6
1975-80	17.4	3.6	9.6	-12.7
1980-85	18.9	3.7	6.1	-12.0
1985-90	22.3	2.5	5.3	15.2
1990-95	13.1	3.1	0.6	-2.1

주: 해외전입인구, 5년전 거주지 미상 제외.

이동률=(기간 이동인구수/기간말 5세 이상 출발지역 인구수)\*100

순이동률 13% 포인트 변화에 대한 서울의 기여율은 25.3%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체의 기여율은 4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여율은 서울이나 수도권 전체의 인구구성비와 비교할 때 높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의 급격한 변화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내의 인구 추세 변동으로 인한 것 만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전국적인 시·군부간 인구이동 추세변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5년 인구총조사의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시부와 군부의 인구분포 및 인구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990-95년 기간의 “시부에서 시부”, “군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 및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인구와 시부-군부간 순이동 인구의 주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성비는 ‘군부→시부’이동이 95.6, ‘시부→군부’이동이 98.1, 시·군부간 순이동인구가 83.7로

나타났다.

〈그림1〉은 이들 두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을 보기 위한 것으로 그 구조는 총이동 인구와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두 이동형태만을 비교할 때는 '시부→군부' 이동에서 성 및 연령의 선택적 경향이 더 높다.

〈그림2〉는 군부 순이동인구의 성 및 연령별 이동률이다. 이를 보면 특히 20-24세 및 25-29세 계층에서 이동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현저한 차이를 보여 인구이동이 연령계층별 군부인구의 성비 및 인구구성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성비는 모든 이동형태별 이동에서 대체로 비슷하지만, 25-29세 연령계층의 군부→시부 이동의 경우 141.9의 매우 높은 성비를 보였고, 30-34세 연령계층에서는 군부에서의 이동이 성비 118내외로 시부에서의 이동의 성비 103과 107보다 훨씬 높았으며, 35-54세 계층에서는 시부나 군부에서 군부로 오는 이동의 경우 성비가 144와 135로 다른 이동형태에 비할 때 성비가 매우 높았다.

이들 성 및 연령구성상의 특징은 '시부→군부' 이동에서는 남자의 경우 30-34세, 25-29세에서 구성비가 높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 25-29세와 30-34세에서 구성비가 높다. 한편 '군부→시부' 이동에서는 남자 25-29세, 20-24세, 15-19세 연령계층에서 구성비가 높았다. 이러한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연령구성 차이는 군부에서 시부로 전입하는 이동인구의 69.8%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고, 시부에서 군부로 전출하는 이동인구의 71.2%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군부로 전출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대도시에서 취학, 구직, 직장에서의 이동, 여자의 혼인을 위한 귀향 등 일련의 생애주기와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5-2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13.5%, 군부→시부 21.5%로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 교육정도별 인구구성에서 휴학 및 재학생의 구성비가 시부→군부 17.7%, 군부→시부 26.9%로서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된다. 또 한 가지 이들 이동형태의 학력별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이동인구중 대학 졸업자들의 구성비가 시부→시부 이동에서 23.9%로 가장 높았으며, 시부→군부 이동은 21.0%로서 일반 시부인구, 군부→시부 이동인구 13.7%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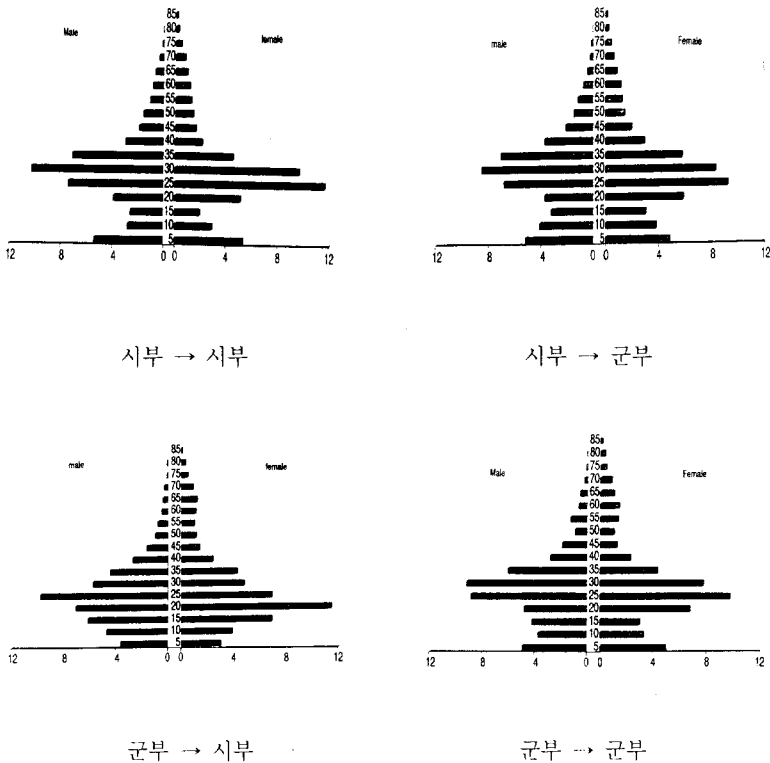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군부→시부이동에서 1인 및 2인 가구와 5인 이상의 가구의 구성비가 높고 3-4인 가구는 시부→군부이동에서 54.5%로 12.0%포인트나 더 높다. 이는 시부→군부 이동에서 유배우 인구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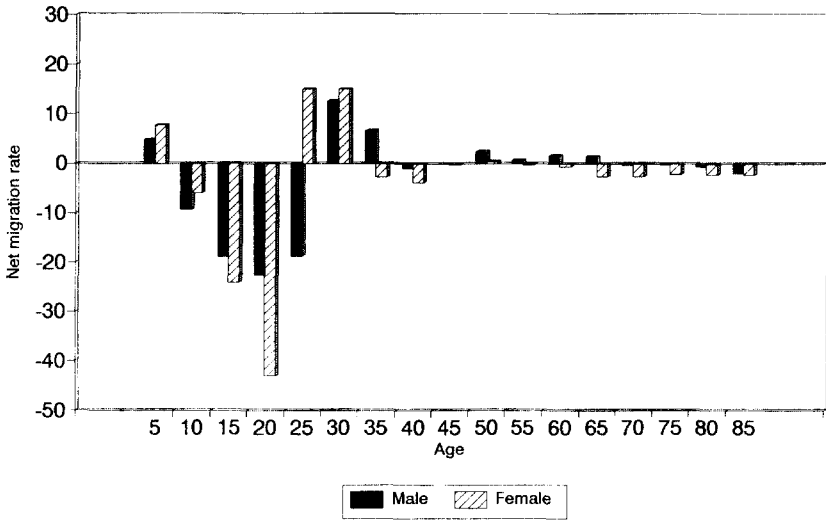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성은 시부 및 군부의 일반가구 분포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가구원수별 가구의 구성은 가구의 세대구성이나 목표지역의 주택사정, 이동형태별 이동사유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현재시점에서 주택소유자의 구성비는 시부 → 군부 34.0%, 시부 → 시부 31.8%, 군부 → 군부 26.3%, 군부 → 시부 19.2%로서 시부에서 출발하는 이동의 경우 주택소유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대도시에서의 주택마련을 위한 이동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이동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훨씬 낮은 주택소유율을 보여준다. 특히 불안정한 주택형태로 볼 수 있는 무보증 월세와 사글세의 경우 시부 → 군부 이동인구 15.0%에 비해 군부 → 시부 이동인구 24.7%로서 9.7%포인트나 높은 구성비를 보여 주었다.

〈그림1〉 시·군부간 전출 및 전입인구의 성 및 연령별 구성비, 1990~95.



〈그림2〉 성 및 연령별 군부 순이동률, 1990~95



〈표2〉에서 마지막 칼럼의 군부 순이동의 영향은 사·군부간 인구이동의 결과가 군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대체적인 크기를 측정코저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 군부인구의 연령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P_x + NM_x}{P + NM_x} - \frac{P_x}{P}}{\frac{P_x}{P}} \times 100$$

이때, P: 군부 총인구

$P_x$ : 군부 x세 인구

$NM_x$ : x세 군부 순이동인구

- 성비 등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M_x + NM_x}{F_x + NF_x} - \frac{M_x}{F_x}}{\frac{M_x}{F_x}} \times 100$$

이때,  $M_x$ : x세 남자수

$F_x$ : x세 여자수

$NM_x, NF_x$ : x세 남자, 여자 순이동

- 이동률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M_x + NM_x}{P_x + NM_x} - \frac{M_x}{P_x}}{\frac{M_x}{P_x}} \times 100$$

이때,  $P_x$ : 군부 x세 인구

$M_x$ : 군부 x세 이동인구

$NM_x$ : 군부 x세 순이동인구

- 평균 가구원수 등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sum M_i (H_i + NH_i)}{H + \sum NH_i} - \frac{\sum M_i * H_i}{H}}{\frac{\sum M_i * H_i}{H}} \times 100$$

이때,  $H$ : 군부 총가구수

$H_i$ : 군부 i계층의 가구수

$M_i$ : i 가구원수 계층의 중앙값

$NH_i$ : i계층의 순전입 가구수

- 따라서 <표2>의 마지막란의 군부 순이동인구가 군부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2〉 이동형태별 이동인구의 특성 분포, 1990~95

특성	시부→시부	시부→군부	군부→시부	군부→군부	군부 순이동의 영향, %
〈성비〉					
15-19	106.4	137.7	88.4	138.6	6.8
20-24	63.9	75.9	60.6	71.4	35.8
25-29	74.3	63.4	141.9	90.4	-29.3
30-34	102.9	106.8	118.7	117.6	2.0
35-54	120.1	144.2	106.6	134.8	4.1
55+	66.1	75.1	46.7	60.8	2.3
계	95.2	98.1	95.6	102.0	1.2
〈남자 연령구성비〉					
5-14	9.2	8.2	8.3	8.6	-2.3
15-19	3.2	2.6	6.1	4.2	-17.5
20-24	3.7	3.9	7.0	4.8	-21.9
25-29	6.8	7.4	9.7	8.8	-16.4
30-34	8.5	10.3	5.7	9.1	11.2
35-54	14.4	13.7	9.7	11.8	1.8
55+	3.0	3.4	2.3	3.2	0.8
계	48.8	49.5	48.9	50.5	-
〈여자 연령구성비〉					
5-14	8.6	8.2	6.9	8.3	-0.7
15-19	3.0	1.9	6.9	3.0	-22.8
20-24	5.8	5.1	11.5	6.7	-41.7
25-29	9.1	11.6	6.9	9.7	14.7
30-34	8.2	9.6	4.8	7.7	12.8
35-54	12.0	9.5	9.1	8.8	-1.2
55+	4.5	4.5	5.0	5.3	-1.0
계	51.2	50.5	51.1	49.5	-
〈교육정도별구성비〉					
고등학교	34.6	37.5	38.1	37.0	-4.6
대학교 이상	23.9	21.1	13.7	14.8	10.9
재학, 휴학	22.6	17.7	26.9	21.9	-8.3
〈주택소유자 비율〉					
자기집	31.8	34.0	19.2	26.3	0.5
월세	22.9	20.5	28.3	25.9	-25.6
1인가구 비율	14.8	16.3	25.5	19.7	12.5
평균가구원수	3.1	3.0	2.8	2.9	-1.7

자료: 통계청, 1995 인구 및주택 총조사 2% 표본

$$x\text{세 구성비에 미치는 영향} = \frac{\frac{P_x + NM_x}{P + NM_x} - \frac{P_x}{P}}{\frac{P_x}{P}} \times 100$$

이때, P: 군부 총인 P<sub>x</sub>: 군부 x세 인구

NM<sub>x</sub>: x세 군부 순이동인구

이들 일련의 결과를 보면 성비의 경우 5년간 순이동 인구는 군부 전체인구의 성비를 1.2% 높여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24세와 25-29세 연령계층의 경우 5년간 인구가동이 해당 연령의 성비에 미친 영향은 35.8%와 -29.3%로 매우 높았다. 연령별 구성비는 군부남자 15-29세 연령계층의 경우 인구가동으로 인하여 매 5년마다 그 구성비가 16.4-21.9% 정도씩 감소되었으며, 남자 30-34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5년마다 11.2% 정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여자의 경우 인구가동의 연령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군부 25-34세 연령층의 구성비를 12.8%와 14.7%정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인구가동이 해당 연령층의 구성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20-24세의 경우 5년간 인구가동에 의한 영향이 이 연령의 구성비를 41.7% 정도나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동이 교육정도별 구성비에 주는 영향은 군부의 재학·휴학생의 구성비를 감소시키고 대학 이상 교육의 구성비는 5년간에 10.9% 정도 높이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인구가동에 의해 1인가구 비율은 12.5%가 감소하고, 주택소유자의 비율은 약간 증가하며, 평균 가구원수는 1.7% 정도 감소하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4. 농촌 지역단위별 인구의 주요특성

한국의 이동인구의 이동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장과 관련되어 있고 도

시와 농촌간에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측면에서의 기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간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 많았고,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왔음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지난 30여 년 간의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의 결과는 인구구조의 불균형, 농촌가족과 촌락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Kim N.I. et al., 1994).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농촌사회 전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통계분석에서 평균 등의 대표값에만 의존하고 분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간의 격차 문제를 무시함으로써 분포와 관련된 중요문제를 간과하는 것과 같다. 이는 농촌전체의 인구문제와 각 지역단위의 인구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연구단위로 한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접근방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단위를 군으로 하여, 이들 각 군의 인구규모, 성 및 연령분포, 교육정도 등 인구의 구조적 특성들과 군의 위치, 농지규모, 교통 등 지역의 물리적 여건, 행정서비스, 의료 및 환경여건, 경제활동 등의 분포문제를 고찰하고, 이들과 군 인구성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단위로는 최소행정 단위인 읍·면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료 이용상의 문제 때문에 군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 1) 인구규모별 군의 분포

전국의 군의 수는 1985년 139개, 1990년 137개, 1995년 98개가 있었다. 군의 평균 인구의 규모는 1985년 99천명, 1990년 81천명, 1995년 67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최소와 최대 인구규모는 1985년 17천명과 235천명, 1990년 15천명과 245천명, 1995년의 경우 11천명에서 242천명까지 군별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

<표3>에서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분포를 보면 1995년 인구 3만 미만인 군의 수가 9개 군으로 전체 군의 수 97개군의 거의 10%나 차지한다.<sup>1)</sup> 인구규모가 9만 이

1) 1995년 인구가 3만 미만인 군은 강원도의 화천, 양구, 광양군, 전북의 무주, 장수군, 경북의 군위, 영양, 울릉군, 인천의 용진군 등이다.

〈표3〉 인구규모에 따른 군의 수, 1966~95

(단위: %)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3만미만	2( 1.4)	2( 1.4)	1( 0.7)	1( 0.7)	1( 0.7)	4( 2.9)	9( 9.3)
3-6만	5( 3.6)	7( 5.0)	6( 4.3)	13( 9.4)	21(15.1)	35(25.5)	36(37.1)
6-9만	16(11.5)	16(11.4)	19(13.8)	30(21.6)	50(36.0)	53(38.7)	34(35.1)
9-12만	32(23.0)	41(29.3)	43(31.2)	43(30.9)	26(18.7)	30(21.9)	11(11.3)
12-15만	31(22.3)	32(22.9)	27(19.6)	20(14.4)	22(15.8)	8( 5.8)	2( 2.1)
15만 이상	53(38.1)	42(30.0)	42(30.4)	32(23.0)	19(13.7)	7( 5.1)	5( 5.2)
계	139( 100)	140( 100)	138( 100)	139( 100)	139( 100)	137( 100)	97( 100)
최대인구	317,742	272,879	294,312	288,861	235,645	244,921	242,048
최소인구	17,617	14,859	29,479	18,960	17,280	15,283	11,306
평균	139,737	129,879	129,794	113,825	99,182	81,028	66,504

주: 외국인 제외, ( )내는 구성비임.

자료: 경제기획원 1966, 1970, 1975, 1980, 1985년 인구및주택 센서스보고서  
통계청, 1990, 1995년 인구및주택 총조사보고서

상인 군의 비율은 1985년에는 48% (=67/139)이었던 것이 1990년 32% (=44/137), 1995년 19% (=18/97)로 감소하였다. 〈표4〉에서 이들 각 군 인구감소율의 분포를 볼 때도 기간이 지남에 따라 분포의 중심이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1980-95) 각 군의 인구감소의 경향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부인구 전체의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기간별로 1980-85년 -2.6%, 1985-90년 -4.5%, 1990-95년 -2.9%이었다. 이에 비해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을 기간별로 보면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군에서 군부인구 전체의 감소율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표4〉 참조).

또한 이는 군부전체의 인구감소율이 각 군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농촌 인구문제 연구에서 군부전체의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85년과 1985-90년의 경우 군부전체의 인구증가율이 각 군 인구증가율 평균보다 큰 것은 각 군 인구 증가율 계산에는 같은 기간 읍·면의 시승격 등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인구수를 수정하였으나 군부전체의 인구증가율 계산에는 자료수정을 안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표4〉 연평균 인구 증가율에 따른 군의 수, 1985~95

연평균 인구증가율(%)	1980~85	1985~90	1990~95
-9.0 미만	-	-	3( 3.1)
-9.0 -6.0	1( 0.7)	7( 5.1)	4( 4.1)
6.0 -3.0	39(28.1)	60(43.8)	54(55.7)
-3.0-0.0	82(59.0)	53(38.7)	24(24.7)
0.0-3.0	13( 9.4)	11( 8.0)	9( 9.3)
3.0 이상	1( 2.9)	6( 4.4)	3( 3.1)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1.9	-2.7	-3.2
변이계수	-119.9	-95.9	-89.3
최대증가율	9.6	6.0	9.6
제3사분위수	1.0	-1.4	-2.2
제1사분위수	-3.2	-4.6	-4.9
최대감소율	-8.3	-7.2	-9.4
군부 인구 증가율	-2.6	-4.5	-2.9
총인구 증가율	1.6	1.4	0.5

자료: 〈표3〉 참조

기간별로 각 군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의 분포는 다소 하향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군 연평균 증가율의 변이계수는 1980-85년 -119.9%, 1985-90년 -95.9%, 1990-95년 -89.3%로서 점차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군의 인구감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군별로 보면, 1990-95년 기간 전남 신안군이 -9.4%로 가장 심한 연평균 인구감소율을 보였고, 연평균 -6.0%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군은 강원도 정선군, 전남의 보성, 강진, 해남군, 전북의 진안군 등이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 -9.0%, -6.0% 등은 인구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각각 8년, 12년이 될 것임을 뜻하므로 이들 농촌 인구가 얼마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1980-85년 기간과 1985-90년 기간 5개 시와 29개 시가 각각 새로이 시로 승격되었다.



〈표5〉 평균 가구원수별 군의 분포, 1985~95

평균 가구원수	1985	1990	1995
2-3	-	-	28(28.9)
3-4	14(10.1)	100(73.0)	69(71.1)
4-5	124(89.2)	36(26.3)	-
5+	1( 0.7)	1( 0.7)	-
계	139( 100)	137( 100)	97( 100)
최대	5.6	5.1	3.8
최소	6.4	3.1	2.6
평균	4.3	3.8	3.2
군부 평균가구원수	4.1	3.6	3.1
전국 평균가구원수	4.0	3.7	3.3

자료: 〈표3〉 참조

그 밖의 대부분의 군에서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 경북 달성군, 양산군, 경기 용인군, 부산 기장군 등을 비롯한 12개 군에서는 절대인구가 증가하였다. 대체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군은 강원, 충남북, 전남북에 소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군들의 대부분이 경기와 경남북에 속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군부전체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85년 4.1인, 1990년 3.6인, 1995년 3.1인으로 군부 인구감소와 함께 계속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는 없다. 이동인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전체인구의 평균 가구원수보다 작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사실은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의 선택적 도시이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일부 가구원의 분가 내지는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가구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5〉에서 각 군의 평균 가구원수의 평균은 군부전체의 평균 가구원수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별분포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각 군 1인 가구비율의 분포, 1985~95.

1인가구 비율	1985	1990	1995
7 미만	60(43.2)	11( 8.0)	0( 0.0)
7 ~ 10	65(46.8)	51(37.2)	1( 1.0)
10 ~ 13	13( 9.4)	40(29.2)	20(20.6)
13 ~ 16	1( 0.7)	32(23.4)	21(21.6)
16 ~ 19	0( 0.0)	3( 2.2)	24(24.7)
19 ~ 22	0( 0.0)	0( 0.0)	26(26.8)
22 이상	0( 0.0)	0( 0.0)	5( 5.2)
평균	7.4	10.7	16.6
변이계수, %	25.3	26.5	22.6
최대구성비	14.7	16.8	24.8
3사분위수	8.6	13.0	19.5
1사분위수	6.0	8.6	13.7
최소구성비	3.2	3.9	7.0
군부인구	7.2	10.3	15.6
총인구	6.9	9.0	12.7

자료: 〈표3〉 참조.

즉, 1985년에는 군의 평균 가구원수 4인 이상 5인 미만의 경우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과 1995년에 3인 이상 4인 미만의 군들이 각각 73.0%와 71.1%를 차지하였고, 특히 1995년에는 나머지 군들(28.9%)이 모두 2인 이상 3인 미만의 군 평균 가구원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가구규모 분포가 크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1995년 이전에는 군평균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인 군은 볼 수 없었다.

1인 가구원 가구의 비율이 기간별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각군의 1인가구 비율의 평균은 1985년 7.4%, 1990년 10.7%, 1995년 16.6%로서 분포 중심의 상향이동과 함께 분포모양이 약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표6참조). 1995년의 경우 최소가 충남 당진군의 7.0%이고, 최고는 인천 용진군의 24.8%로서 범위가 17.7%포인트나 된다. 이외 가구의 비율이 특별히 낮은 지역은 경기의 양평, 이천, 용인, 김포군 등이며 특별히 높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 경북 영덕군, 경남의 의령, 함양군 등이다.

〈표7〉 각 군의 성비의 분포, 1985~95

성비	1985	1990	1995
90 미만	-	-	2( 2.1)
90-95	2( 1.4)	7( 5.1)	29(29.9)
95-100	35(25.2)	50(36.5)	29(29.9)
100-105	77(55.4)	62(45.3)	27(27.8)
105 이상	25(18.0)	18(13.1)	10(10.3)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102.1	101.1	98.3
변이계수, %	3.3	4.1	5.0
최대	118.2	127.3	110.2
제3사분위수	104.0	103.1	101.4
제1사분위수	99.9	98.5	91.2
최소	90.6	94.0	88.9
군부인구 성비	102.2	101.1	99.2
총인구 성비	100.2	100.7	100.7

주: 성비= (남자인구수/여자인구수)\*100, ( )내는 구성비임

## 2) 인구의 성 및 연령에 따른 군의 분포

각 군 인구의 평균성비는 1985년 102.1, 1990년 101.1, 1995년 99.3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인구의 성비, 100.2, 100.7, 100.7에 비해 1990년 이전에는 높았으나 1995년에는 총인구보다 약간 낮은 성비를 보인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인구의 영향이 아니고 인구의 연령별 구성에서 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농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7〉에서 각 군 인구의 성비의 분포를 보면, 먼저 평균은 군부전체인구의 성비와 같다. 다만 1995년의 경우, 평균성비는 군부인구의 성비보다 약간 낮은 98.3이었다. 이는 각 군 성비의 분포가 왼쪽으로 더 긴 꼬리를 갖는 모양으로 차츰 변해가

〈표8〉 각 군의 0~1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1985~95

0~14세 인구 구성비(%)	1985	1990	1995
15 미만	-	-	2( 2.1)
15-18	-	1( 0.7)	20(20.6)
18-21	-	11( 8.0)	51(52.6)
21-24	-	71(51.8)	19(19.6)
24-27	4( 2.9)	48(35.0)	4( 4.1)
27 이상	135(97.1)	6( 4.4)	1( 1.0)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30.5	23.6	19.7
변이계수, %	7.7	8.7	12.1
최대 구성비	37.7	31.4	27.1
제3사분위수	32.1	25.0	20.9
제1사분위수	28.8	22.1	18.1
최소 구성비	26.0	17.6	14.1
군부인구	30.4	23.6	20.2
총인구	29.9	25.7	23.0

자료: 〈표3〉 참조

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의 분포에서는 90 미만의 성비를 가진 군도 2개군(경남의 남해, 함안군)이었고, 105 이상으로 성비가 높은 군은 경기도의 양주, 화성군, 강원도의 평창, 정선군 등 10개 군이었다. 전체분포상의 변화는 성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포의 모양이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각 기간별 변이계수는 1985년 3.3%, 1990년 4.1%, 1995년 5.0%로 점차 증가하였다.

군부전체 인구의 0-14세 인구구성비는 1985년 30.4%, 1990년 23.6%, 1995년 20.2%로서, 총인구와 비교할 때 1985년은 군부인구가 더 높았으나, 1990년부터는 군부인구에서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인구의 0-14세 구성비가 일반인구보다 낮으므로, 이 연령층의 인구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부의 조출산율이 시부보다 낮고, 또한 25-34세의 주요 출산연령층 여자인구 구성비가 군부에서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표11〉 참조).

〈표9〉 각 군의 15~64세 인구 구성비의 분포, 1985~95

15~64세 인구 구성비(%)	1985	1990	1995
60미만	26(18.7)	-	-
60-62	37(26.6)	1( 0.7)	-
62-64	38(27.3)	8( 5.8)	3( 3.1)
64-66	29(20.9)	35(25.5)	16(16.5)
66-68	8( 5.8)	50(36.5)	40(41.2)
68-70	1( 0.7)	33(24.1)	30(30.9)
70 이상	-	10( 7.3)	8( 8.2)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62.4	67.0	67.5
변이계수, %	3.8	3.0	2.5
최대 구성비	68.5	72.2	70.9
제3사분위수	64.2	68.3	68.8
제1사분위수	60.6	65.6	66.6
최소 구성비	57.2	61.9	63.3
군부인구	62.7	67.3	68.1
총인구	65.8	69.4	70.9

자료: 〈표3〉 참조

〈표8〉에서 각 군의 인구 중에서 0-1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를 보면 평균은 군부 전체 인구의 0-14세 구성비와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0-14세 인구 구성비에 따른 군의 분포를 보면 기간에 따라 급격히 하향 변화하고 있으며, 변이계수를 볼 때 군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9〉에서 각 군의 평균 노동력 인구(15-64세 인구) 구성비를 보면 연도별로 1985년 62.4%, 1990년 67.0%, 1995년 67.5%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군별 구성비의 분포는 그 분포의 중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상향 이동하고, 전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차츰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표10〉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각 군의 평균이 1985년 7.1%, 1990년 9.5%, 1995년 12.8%로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총인구의 65세 이

〈표10〉 각 군의 65세 이상 인구구성비의 분포, 1985~95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1985	1990	1995
5 미만	10( 7.2)	2( 1.5)	1( 1.0)
5-8	90(64.7)	29(21.2)	6( 6.2)
8-11	39(28.1)	74(54.0)	22(22.7)
11-14	-	31(22.6)	30(30.9)
14-17	-	1( 0.7)	31(32.0)
17 이상	-	-	7( 7.2)
계	139( 100)	137( 100)	97( 100)
평균	7.1	9.5	12.8
변이계수, %	20.7	21.7	25.9
최대 구성비	10.7	14.3	18.6
제3사분위수	8.1	10.9	15.7
제1사분위수	6.1	8.1	10.8
최소 구성비	3.5	4.9	4.7
군부인구	6.8	9.0	11.8
총인구	4.3	5.0	5.9

자료: 〈표3〉 참조

상 구성비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총인구의 경우 1985년 4.3%에서 1995년 5.9%로 10년 동안 1.6%포인트가 증가할 뿐이었으나 군평균의 경우 5.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군부인구의 노령화는 군부인구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또한 그 분포가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어 각 군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65세 이상 구성비는 최소 경남 양산군의 4.7%에서 최대 전북 진안군의 18.6%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표11〉에서는 각 군의 조출산율의 차이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 지역의 성별 연령구조에서 주요 출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여자 25-34세 연령계층의 구성비의 분포를 검토하였다. 주요 출산연령층의 구성비는 전체군부보다 각 군의 평균이 다소 낮아 각 군의 분포자료가 농촌의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5년에는 군평균 구성비가 12.5%로 1990년에 비해 1.1%포인트

〈표11〉 각 군 여자 총인구에 대한 주요 출산연령층(25~34세) 인구의 구성비, 1985~95

25~34세 인구구성비	1985	1990	1995
9.5 미만	5( 3.6)	6( 4.4)	24(24.7)
9.5-12.0	55(39.6)	50(36.5)	29(29.9)
12.0-14.5	44(31.7)	40(29.2)	20(20.6)
14.5-17.0	20(14.4)	17(12.4)	9( 9.3)
17.0-19.5	10( 7.2)	12( 8.8)	8( 8.2)
19.5-22.0	3( 2.2)	10( 7.3)	5( 5.2)
22.0 이상	2( 1.4)	2( 1.5)	2( 2.1)
평균	13.0	13.6	12.5
변이계수	21.8	21.8	30.0
최대구성비	23.3	25.3	24.8
3사분위수	14.5	15.5	14.4
1사분위수	11.1	11.2	9.6
최소구성비	9.1	8.6	6.3
군부인구	13.5	14.0	13.6
총인구	17.7	19.6	18.7

자료: 〈표3〉 참조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기간별로는 별 변화추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전국의 구성비와는 1995년 군평균 12.5%에 비해 전국 18.7%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군간의 격차는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5년 최대 구성비는 경남 양산군의 24.8%, 최소 구성비는 충남 당진군의 6.3%였다.

각 군의 조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연령별 유배우 비율이다. 농촌여자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모든 연령에서 유배우율이 도시여자보다 높으나, 남자의 경우는 기간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975년까지는 농촌남자의 유배우율이 도시보다 대체로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1985년 이후에는 역전되어 도시남자의 유배우율이 농촌보다 높다. 이것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남자여자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경, 1990: 348). 특히 농촌의 20~24세 인구에서 남자와 여자수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고, 25세 이후

〈표12〉 각 군 20~24세 연령계층 인구의 성비, 1985~90

	1985	1990	1995
100 미만	2( 1.4)	3( 2.2)	3( 3.1)
100-125	11( 7.9)	10( 7.3)	7( 7.2)
125-150	18(12.9)	18(13.1)	13(13.4)
150-175	33(23.7)	29(21.2)	25(25.8)
175-200	31(22.3)	28(20.4)	15(15.5)
200-225	31(22.3)	15(10.9)	17(17.5)
225-250	11( 7.9)	13( 9.5)	12(12.4)
250 이상	2( 1.4)	21(15.3)	5( 5.2)
평균	178.0	190.6	179.2
변이계수	21.0	28.9	23.7
최대 성비	250.7	388.7	295.7
3사분위수	207.6	223.3	210.9
1사분위수	151.5	151.6	153.5
최소 성비	92.2	74.5	87.9
군부인구 성비	160.3	163.2	152.5
총인구 성비	106.1	109.1	108.3

자료: 〈표3〉 참조

연령계층에서는 결혼을 위해 귀한 혹은 이동하는 여자로 인해 성비가 차츰 감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군별로 이들 연령층 성비의 분포를 보면 지역별로 극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각 군 평균과 군부전체의 성비간에 큰 차이를 보여 지역단위 분포자료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표12 및 표13 참조).

〈표13〉에서 보면, 큰 농촌사회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혼인적령기 인구의 성비는 1995년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성비 130 이상인 군이 50.5%나 되고 군에 따라서는 성비 177로 남녀의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도 있다.

〈표14〉는 각 군 교육수준의 변화와 분포를 보기 위하여 각 군의 30-34세 인구중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기간별로 군의



〈표13〉 각 군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 1985~95

20~34세 성비	1985	1990	1995
100 미만	0( 0.0)	1( 0.7)	2( 2.1)
100-115	17(12.2)	11( 8.0)	9( 9.3)
115-130	54(38.8)	47(34.3)	37(38.1)
130-145	54(38.8)	48(35.0)	36(37.1)
145-160	14(10.1)	26(19.0)	11(11.3)
160 이상	0( 0.0)	4( 2.9)	2( 2.1)
평균	129.3	133.3	130.4
변이계수	8.8	11.1	10.5
최대 성비	156.1	209.6	177.3
3사분위수	137.6	143.1	140.5
1사분위수	120.5	122.9	122.5
최소 성비	100.8	98.6	93.3
군부인구	125.0	128.5	124.6
총인구	103.1	104.1	104.1

자료: 〈표3〉 참조

평균 구성비를 보면 1985년 7.9%, 1990년 13.2%, 1995년 22.4%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시부에서 군부로의 이동을 통해 유입됨으로써 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적인 분포의 모양은 기간별로 평균이 점차 상향이동함과 동시에 평균에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교육수준은 군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로 1995년 최대구성비는 경기 화성군의 56.6%, 최소구성비는 충남 태안군의 11.4%이었다.

〈표15〉은 1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광공업 분야의 취업자수의 분포를 본 것으로, 기간별로 광공업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분포의 모양은 점차 집중하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군간의 차이는 매우 커서 1995년 변이계수가 116%이고 최소 5.9명(경북 울릉군)과 최대 511.6명(경기 화성군) 간의 범위가 무려 505.7명이나 된다.

〈표14〉 각 군 교육수준의 분포, 1985~95

교육수준	1985	1990	1995
5 미만	9( 6.5)	0( 0.0)	0( 0.0)
5-10	105(75.5)	28(20.4)	0( 0.0)
10-15	24(17.3)	69(50.4)	5( 5.2)
15-20	1( 0.7)	34(24.8)	27(27.8)
20-25	0( 0.0)	5( 3.6)	38(39.2)
25-30	0( 0.0)	1( 0.7)	22(22.7)
20-35	0( 0.0)	0( 0.0)	3( 3.1)
35 이상	0( 0.0)	0( 0.0)	2( 2.1)
평균	7.9	13.2	22.4
변이계수	29.5	28.5	25.6
최대구성비	17.2	26.3	56.6
3사분위수	8.8	15.6	25.8
1사분위수	6.4	10.7	18.9
최소구성비	3.2	6.0	11.4
군부인구	13.0	15.1	19.2
총인구	15.8	18.7	19.3

주: 교육수준은 30~34세 인구 중 고등학교 중퇴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구성비  
 자료: 〈표3〉 참조

〈표16〉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들이 군의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인구증가율에 따라 모든 군을 6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6개 집단중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집단)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의 평균들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가장 낮은 집단( $r < -5.5\%$ )과 가장 높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평균 인구의 규모는 58천명대 110천명, 전체인구의 성비는 98대 102로 모두 인구증가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순인구이동률은 -37.3 대 37.3으로 인구증가군에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인구증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서 0-14세와 15-64세 계층의 구성비는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더 높고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8.1% 대 13.7%로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각 군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수의 분포, 1985~95

광공업 취업자수	1985	1990	1995
5 미만	9( 6.5)	2( 1.5)	2( 2.1)
5-10	21(15.1)	9( 6.6)	2( 2.1)
10-15	23(16.5)	6( 4.4)	3( 3.1)
15-20	17(12.2)	20(14.6)	7( 7.2)
20-25	8( 5.8)	9( 6.6)	10(10.3)
25-30	3( 2.2)	14(10.2)	5( 5.2)
30-100	42(30.2)	46(33.6)	43(41.3)
100-200	8( 5.8)	19(13.9)	13(13.4)
200-300	5( 3.6)	6( 4.4)	8( 8.2)
300-400	3( 2.2)	4( 2.9)	0( 0.0)
400 이상	0( 0.0)	2( 1.5)	4( 4.1)
평균	48.1	72.7	88.4
변이계수	141.0	123.0	116.0
최대구성비	341.3	450.4	511.6
3사분위수	53.0	88.4	102.9
1사분위수	10.8	19.0	25.3
최소구성비	1.0	1.2	5.92

자료: 〈표3〉 참조

이들 지역의 물리적인 특성은 가까운 시까지의 평균거리가 40km 대 22km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시에 가까웠고, 또한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이 많고 (75%), 도로포장율은 61% 대 73%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인구증가율 최상위군과 최하위군 간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 비교, 1995

특성	상위집단( $r > 0.0\%$ )		하위집단( $r < -5.5\%$ )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까지의 거리(km)	22.1	11.5	40.0	19.4
철도 접속비율	58.0	51.0	40.0	50.0
고속도로 접속비율	75.0	45.0	0.0	0.0
전답(1,000ha)	10711.8	5297.2	15726.7	7737.5
도로 포장율(%)	73.3	13.5	61.1	15.5
인구수(1,000인)	110.0	54.4	58.1	2270.1
평균 가구원수	3.5	0.2	3.0	1.5
0-14 인구 구성비(%)	23.2	2.0	19.4	2.0
15-64세 인구 구성비(%)	68.8	1.1	67.0	2.8
65+세 인구 구성비(%)	8.1	2.5	13.7	43.7
인구밀도(인/km)	238.8	95.9	95.7	3.4
전입 인구율	18.3	5.3	11.3	3.3
전출 인구율	14.5	1.9	15.1	9.9
병원수	48.8	29.3	19.7	13.5
의료인수(10,000명당)	20.2	8.4	18.4	1.0
의약품판매업소(10,000명당)	4.6	1.0	6.0	14.9
군내 정부기관수	50.6	19.4	68.3	55.8
공무원수(10,000명당)	61.6	16.4	126.9	336.3
1인당 총예산(1,000원)	896.7	302.1	1360.5	12.2
중학교 학생수(1,000명당)	42.9	7.6	57.9	389.7
경운정지기(10,000명당)	609.8	332.5	965.8	277.4
병충해방제기(10,000명당)	379.3	243.9	843.1	111.0
동력어양기(10,000명당)	177.8	95.7	259.0	1374.3
추곡수매(kg, 10,000명)	766.9	648.3	2301.1	32.8
광공업종업원수(15+인구1,000명당)	260.9	93.7	43.4	385.8
생활보호대상자(10,000명당)	381.0	209.0	1186.1	

## 5. 인구성장 수준과 지역특성의 연관성

앞에서 각 군별로 인구성장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1980-95년 기간중에는 이러한 각 군별 인구성장률의 차이가 계속 유지됨으로서 각 군간의 인구규모와 성 및 연령구조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어서 어떤 특성들이 각 군 인구성장의 차이에 연관관계가 깊은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는 각 군의 인구성장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각각 별도로 분석하였으나,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변수분석의 방법에 의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구성장과 지역 특성간의 관계가 인과적인 관계로 명확히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적인 다변수 분석기법보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판별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각 군을 인구성장속도(집단변수, group variable)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간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의 다른 특성들을 판별변수로 하여 이들의 선형결합인 정준판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를 구한다. 이때의 선형결합 즉, 판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함수값에 의해 각 군을 집단으로 분류를 할 때 잘못된 분류되는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각 함수들은 서로 직교토록 한다. 이렇게 얻어진 판별함수의 값은 그 개체의 소속집단을 분류 혹은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성장 차이가 어떤 다른 특성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집단의 수를 몇 개로 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는 먼저 판별함수의 수가 "집단수-1"이 되고 그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해석이 복잡하다는 점과 집단 내 군의 수를 고려하여 집단수를 3개로 정하였다. 또한 집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전체의 관찰수가 94개군임으로 각 집단내 관찰수가 비슷하게 되도록 1990-95년 기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이용하여 3개의 집단( $GR < 0.045$ ,  $-0.045 \leq GR < 0.026$ ,  $GR \geq 0.026$ )으로 분류하였다.

판별변수로는 거주지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서 자료이용이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지역의 인구특성 외에 지역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가까운 도시까지의 거리, 철도·고속도로·수로 등의 이용가능

〈표17〉 표본전체 표준화된 정준관별계수(Total-sample standardized canonical coefficient)

변수	Can 1	Can 2
20-24세 인구 성비	1.12017	0.11824
25-29세 인구 성비	0.00946	0.83499
30-34세 고졸 이상 인구구성비	-0.34825	1.00443
고속도로(km)	-0.20492	0.62343
정부 기관수	0.17556	0.55247
의약품 판매업소(10,000명당)	0.41113	-0.07046
전답(ha)	0.31628	-0.42079
공무원수(10,000명당)	0.53034	0.07915
경운정지용 기구(10,000명당)	-0.47880	0.60352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09929	-0.47048
Wilk's $\lambda$	0.2712	0.7408
Approx. F	7.63(20, 166)	3.26(9, 84)
Pr > F	0.0001	0.0019

주: \*()안의 숫자는 분자와 분모의 자유도

성, 농지규모, 도로포장률; 의료 및 환경여건으로 병원수, 인구 10,000명당 의료인수 및 의약품 판매업소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수, 상수도 보급율; 행정서비스 관련변수로 군내 정부기관수,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1인당 연간 예산액; 교육문화 관련 변수로 인구 10,000명당 중학생수와 고등학생수, 1인당 공공도서관장서수; 경제관련 변수로 농가인구비율, 인구 10,000명당 농업용 기계(경운기, 병충방제기구, 동력 이앙기), 추곡수매 실적,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종업원수, 인구 10,000명당 생활보호 대상자수 등의 변수를 모두 1차 분석에 포함하였다.

1차분석에서는 SAS관별분석 프로그램에서 PROC STEPDISC의 증감선택법(Stepwise selection)방법에 의해 관별변수로서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들은 거주지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계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중 30-34세 인구중 고졸 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 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

〈표18〉 표준화된 변수와 판별함수에 의한 표본전체 집단평균  
(Total-sample standardized class mean)

변수	집단 1	집단 2	집단 3
20-24세 인구 성비	0.74128	0.18405	-0.91957
25-29세 인구 성비	0.01843	0.28027	-0.28994
30-34세 고졸 이상 인구구성비	-0.53959	0.04609	0.49491
고속도로 접속여부	-0.55970	0.19739	0.36848
정부 기관수	0.21509	0.16381	-0.37378
의약품 판매업소(10,000명당)	0.43131	0.05593	-0.48549
전답(ha)	0.10869	0.08250	-0.18861
공무원수(10,000명당)	0.37982	0.20666	-0.58002
경운정지용 기구(10,000명당)	0.08035	0.34570	-0.41525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43975	-0.28035	0.71134
Can 1	1.50190	0.14640	-1.64373
Can 2	-0.45971	0.83387	-0.34810

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 등 10개 변수였다.

2차분석은 이들 판별변수와 SAS의 CANDISC 처리절차를 이용하여 정준판별함수를 구하였다. 〈표17〉는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Can 1과 Can 2의 계수를 구한 것으로 잔여판별능력의 측정치라 할 수 있는 Wilk's  $\lambda$ 에 의하면 첫 번째 판별함수(Can 1)와 두 번째 판별함수(Can 2)는 모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의 의미는 이 함수에서 계산된 판별값(discriminant score)은 표준화변수(Z score)가 되고, 또한 각 함수값에 판별변수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표준화된 계수를 이용하여 각 판별함수에서 판별변수들의 중요도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원판별계수(raw coefficients)는 분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판별값을 계산할 수 있으나 판별변수간의 분포의 차이 때문에 계수들을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산된 판별값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제1판별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20-24세의 성비,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등의 순위이고, 제2판별함수에서는 30-34세 고졸 이상 인

〈표19〉 특성근(Eigenvalue)에 의한 중요도의 측정

정준관별함수	특성근	상대비율 %	정준상관계수
Can 1	1.7316	83.2	0.796 (0.633)
Can 2	0.3500	16.8	0.509 (0.259)

주: () 내는 eta square의 추정치임.

구구성비, 25-29세 성비, 고속도로 접속여부, 경운정지용 기계수(+), 정부기관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는 표준화된 판별변수들의 각 집단평균 값들이다. 이들 평균값을 각 판별함수에 대입하면 각 집단의 중심점(centroid)을 두 개의 판별함수 값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모형에서의 판별분석은 10개 차원(10개 판별변수)을 이들의 선형결합에 의해 2개의 차원으로 축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판별값들은 표준화된 값이므로 이 값만 가지고도 각 집단 중심점의 위치는 짐작할 수 있고 집단 중심점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첫째 정준판별함수 값(Can 1)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집단(집단 1과 2) 간의 거리가 1.4표준편차인데 비해 두 번째 정준판별함수의 경우 가장 가까운 두 집단(집단 1과 3) 간의 거리가 0.11표준편차 밖에 안되어 집단간의 구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별분석에서 정준판별함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는 특성근(Eigenvalue)과 특성근의 상대비율을 이용하기도 한다. 〈표19〉은 이번 분석에서의 특성근과 그 상대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비율을 볼 때 Can 1이 83.2%, Can 2가 16.8%로서 Can 1이 이번 분석에서 훨씬 중요한 판별함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성근과 그 상대비율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Can 1이 가장 중요한 판별함수라 할 지라도 집단과의 관계는 약할 수 있으므로 Can1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집단과 판별함수간의 정준상관계수를 볼 필요가 있다. 정준상관계수는 가변수에 의해 나타낸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준판별함수값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에서의 eta와 같으므로, 이 값을 자승한 것은 eta square와 같다. 따라서 정준상관계수를 자승한 값은 판별함수값의 변동중 집단에 의해 설명이 되는 변동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Can 1값의 총변동 중 63.3%가 집단에 의해 설명이 되고 Can 2의 경우 25.9%가 집단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0〉 전체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

변수명	Can 1	Can 2
20-24세 인구 성비	0.87068	0.14624
25-29세 인구 성비	0.17868	0.36428
30-34세 고졸이상 인구구성비	-0.53123	0.12910
고속도로 접속여부	-0.46583	0.32958
정부 기관수	0.31552	0.18686
의약품 판매업소(10,000명당)	0.47746	0.01817
전답(ha)	0.15928	0.09406
공무원수(10,000명당)	0.51012	0.22191
경운정지용 기구(10,000명당)	0.27992	0.44198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61401	-0.31066

〈표20〉과 〈표21〉는 판별분석의 결과중 정준구조계수(Total canonical structure)와 합동집단내 정준구조계수(Pooled within group canonical structure)를 제시한 것이다. 대체로 집단내 구조계수는 전체구조계수와 패턴은 비슷하나 다소 작은 절대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표준화된 정준판별계수가 함수값의 계산에서 각 판별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판별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각 판별함수는 다른 판별계수의 영향을 제외한 고유한 영향만을 나타냄으로 각 판별변수의 중요도를 완전히 나타내지는 못한다. 반면 정준구조계수는 한 판별변수와 판별함수값간의 단순상관계수임으로 다른 판별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준구조계수는 각 함수에서 판별변수들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더 적합한 통계치라 할 수 있고, 또한 각 함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20〉에서 보면 Can 1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거나 광공업 종사자의 수가 많거나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군의 경우 함수값은 낮고("-"계수를 가졌으므로), 즉 3집단에 가깝고 20-24세 성비가 높거나, 의약품 판매업소수, 공무원수 등이 많을 경우 함수값도 높은 경향이 있어 1집단에 가까움을 뜻한다.

종합하면 각 지역단위의 인구증가에 중요한 요인은 고속도로 접속여부, 학력수준, 광공업 산업시설, 공무원수와 같은 지역의 여건과 인구학적 요인으로 20-29세 연령계층의 성비 등이다.

〈표21〉 합동 집단내 정준구조계수(Pooled within group canonical structure)

변수명	Can 1	Can 2
20·24세 인구 성비	0.73487	0.17557
25·29세 인구 성비	0.11119	0.32246
30·34세 고졸 이상 인구구성비	-0.35565	0.12294
고속도로 접속여부	-0.30857	0.31056
정부 기관수	0.19819	0.16696
의약품 판매업소(10,000명당)	0.31236	0.01691
전답(ha)	0.09727	0.08171
공무원수(10,000명당)	0.34037	0.21062
경운정지용 기구(10,000명당)	0.17856	0.40105
광공업 종업원수 (15+ 인구, 1000명당)	-0.43304	-0.31167

## 6. 요약 및 결론

1960년 이래 우리 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빠른 속도로 인구변천을 경험했다. 인구변천의 부산물로 한국의 인구는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구변천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기간중 많은 인구를 도시로 내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농촌지역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로 최근 농촌사회에서 관찰되는 인구구조의 왜곡현상이 주로 농촌-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원인이 있으며, 지역단위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의 지역단위별 인구특성에 따른 인구분포의 변화를 비교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단위별 농촌인구의 구조와 특성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농촌인구 절대수의 급속한 감소: 1960년 농촌인구(면부인구)는 총인구의 63% 혹은 1,570만 명이었던 것이 1995년에는 총인구의 13.6% 혹은 608만 명(군부인구는 총인구의 21.5% 혹은 95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제거할 때 각 군 연평균 인구감소율의 평균치는 기간별로 1980-85년 -1.9%, 1985-90년 -2.7%, 1990-95년 -3.2%로서 감소추세가 점점 급격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1995년 인구규모별 각 군의 분포는 각 군간의 인구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인구 규모가 3만 미만인 군이 9개군(9%)나 된다. 각 군 인구성장률의 분포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1990-95년 기간 인구가 증가한 군이 12개군이며 연평균 증가율이 -6% 미만인 군이 7개군 이었다. 인구증가율 -9% ~ -6%일 경우 인구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는 8년과 12년이 걸리므로 이들 지역의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3) 군부인구의 순전출률이 1965-75년 -9.1%에서 1985-90년 -75.2%로 “-”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1990-95년)에는 -2.1%로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의 영향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다.

(4)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중 가장 뚜렷한 특징은 대체로 15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으며, 반대로 50세 이상의 고연령 인구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한국에서 농촌인구는 급격한 고령화현상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구성비율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각 군의 연령계층별 구성비 분포에 있어서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간별로 볼 때 0-14세 인구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군간의 격차가 차츰 감소할 것이나, 65세 이상 구성비의 경우 분포가 확산되고 있어 격차가 점점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출산연령층인 여자 25-34세 인구 구성비의 군별 분포는 분포의 중심이 하향이동하고 있으나 각 군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장래 출산율 수준의 군별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각 군별 혼인적령기 인구(20-34세)의 성비는 100 미만에서 160 이상까지 그 격차가 매우 크다. 그리고 성비 130 이상인 군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적령기 남초현상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적령기 성비는 적으나마 집중해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에는 다소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각 군별 노동력인구 1000명당 광공업 취업자수의 분포를 보면, 분포의 모양은 다소 집중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군별로 5명 미만에서 40 이상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산업구조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각 군에서 1인가구의 비율은 10% 미만에서 22% 이상까지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분포의 모양은 상향이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도 보여 장래에는 20%에 가까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군간에 동질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 군인구의 성장수준을 판별하는 데 유의한 변수는 거주지의 물리적 조건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접속여부(고속도로가 군의 경계내를 통과하는가?)와 농지면적, 행정 및 의료서비스 중에서 정부기관수와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 인구 10,000명당 의약품 판매업소수, 교육문화 변수 중 30-34세 인구 중 고졸 이상의 구성비, 경제관련 변수 중 농가인구 10,000명당 경운정지용 기계수, 노동력 인구 1,000명당 광공업 종업원수, 인구변수 중 20-24세 및 25-29세 인구의 성비 등 10개 변수였다. 이중 판별에 가장 기여가 큰 단일변수로는 20-24세 인구의 성비였다.

이상의 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지역단위(군)별 인구구조상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단위별 인구구조의 변화로 예상되는 농촌의 문제는 군부나 면부의 총괄분석을 통해 알려진 농촌문제보다 각 지역단위별로 분석할 때 알 수 있는 농촌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농촌을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단위별로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

- 김남일(1997), 《최근 인구이동의 추세변동》, 미발간.
- 김유경(1990), “결혼율 및 초혼연령의 변동과 전망”,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태환(1992), “인구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농촌사회》 2: 39-56.
- \_\_\_\_\_·박영진(1993), 《한국인의 가구 및 가족유형》, pp. 15-16, 서울: 통계청.
- \_\_\_\_\_·장경섭(1995), “한국 가족농 재생산체계의 위기”, 《한국인구학회지》 18(1): 1.
- 최진호·최병선(1993), 《지역간 인구 불균형 분포의 원인과 결과》, 서울: 통계청.
- Kim, Nam-Il·Soon Choi·Insook Han Park(1994), “Rural Family and Community Life in South Korea: Changes in Family Attitudes and Living Arrangements for the Elderly”, In *Traditional and Change in the Asian Family*, pp. 273-318. edited by Lee-Jay Cho and Moto Yada, Honolulu: East-West Center.
- Shryock, Henry S. and Jacob S. Siegel(1973)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Washington D.C.: U.S. Bureau of Census.
- U. N. (1970) *Method of Measuring Internal Migration*, Manual VI, New York.

abstract

---

**Internal Migration and Changes in the Gun's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

Nam-II Kim · Soon Choi

There was a rapid population change accompanied with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recently in Korea. The changes were nationwide though greater in rural, where the population decreased steeply, through the internal migration from rural to urban. There, in the structure of Gun's population, severely distorted features have been shown in the study.

Also, the structure differ greatly by Gun. It indicated that the rural problems were much more serious than anticipated when analyzed generally. It tells us that we should consider the problems related with different population structure in developing the programs for the rural.